

광주 구청장 선거 '대혼전' 예고

3곳 무주공산... 임우진 서구청장 민주 검증 통과 못해 평화당, 김성환 동구청장 이어 임 구청장 영입 움직임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옛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나뉘면서 각 당이 '호남정치 1번지' 광주에서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임 구청장이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구청장 임명을 노리는 각 당의 후보 공천 작업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임 구청장은 공직후보자 검증에서 소명을 통해 '부적격 예외자'로 인정돼 중앙당 최고위에 후보였으나 두 차례 보류 끝에 지난 30일 최종 부적격 처리됐다. 과거 두 차례 유승운 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것이 끝내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시장

출마와 연임 제한 탓에 현역이 불출마하는 남구·북구·광산구 3곳을 포함해 서구청장 선거전도 더욱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임 구청장이 재선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나설 것인지, 혹은 민주평화당이나 다른 정당 소속으로 선거에 입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선택이 더욱 복잡해진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보현·김영남 광주시의원, 김성현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 서대성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이 민주당 후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길수 세무사가 거론되고, 평화당도 후보를 물색 중이다.

무엇보다도 평화당 내부에서 임 구청장의 영입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평화당은 최근 옛 국민의당을 탈당한 김성환 동

구청장을 영입하면서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호남지역에서의 지방선거 선전을 통해 당의 존립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실제, 평화당 지도부는 최근 광주·전남·북을 잇따라 방문해 입지를 넓히고 있고, 조심스럽게 임 구청장 영입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평화당 한 관계자는 "광주지역 기초단체 2곳 이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후보를 공천할 것이며, 임 구청장도 영입 대상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후보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의당 분화 과정에서 김 정장을 품지 못한 바른미래당은 최근 광주지역 5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구청장 후보군을 대상으로 막바지 영입 작업 중이며, 청년과 여성 등 지역 정치를 이끌 참신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안철수 4일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한국당 김문수 카드 만지작

23년만에 유력후보 '3파전'

서울시장 선거가 유력후보 '3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박원순 현 시장과 박영선·우상호 의원 중에서 후보가 결정된다.

또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오는 4일 오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안 위원장의 이번 서울시장 선거 도전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무소속 출마

를 검토했던 그는 서울시장 후보로 50%를 넘는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는 양보를 통해 박원순 현 시장이 벌어진 단일후보로 올라서는 발판을 만들어준 바 있다.

후보 찾기에 난항을 겪은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내세울 태세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 김 전 지사는 35%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카드"라며 "보수결집만 이룰 수 있다면 서울시장 선거도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홍준표 대표는 최근 김 전 지사를 만나 출마를 제의했고, 김

전 지사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과 김 전 지사가 출마가 실현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제 1야당인 한국당,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경쟁하는 3파전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애선이 곧 본선'이라고 할 만큼 승리에 대한 낙관론이 퍼져있지만 일단 3자 구도가 성립되면서 선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유력 후보 3명이 대결을 벌인 것은 23년 전인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때다.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정원식 후보와 민주당 조순 후보, 무소속 박찬중 후보가 대결을 벌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김홍걸·김현철 등 전직대통령 아들 재보선 차출 주목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을 둘러싼 재보선 차출설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재보선에서 이들을 전략공천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막판 방침 변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마설의 주인공은 고(故) 김대중(DJ)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화회 상임의장과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다.

김 상임의장의 경우 부친의 고향이 신안인 만큼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재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김 특임교수는 부산 해운대 을 보궐선거 출마설

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그들에 대한 전략공천은 명분도 시기도 적절치 않다"며 "총선에서 이들이 출마하면 국민통합의 의미를 부각할 수도 있지만, 소수만 치러지는 재보선에서는 애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무리한 전략공천으로 유리한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홍걸 의장의 경우엔 아직까지 전략공천이나 전격적인 후보 등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 김 의장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우기종 전남부지사 사의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에 발을 디뎠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우 전 부지사는 지난 30일 전남도에 사직서를 내고 민주당 목포지역위원장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모 마감 결과, 우 전 부지사 혼자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은 우 전 부지사의 지역위원장 자격 여부를 심사한 뒤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우 전 부지사는 애초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설이 돌았으나, 목표를 정계 입문 무대로 삼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6·13 선거 현상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강신기 매니페스토 광주시 '소통대상'



강신기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2018 매니페스토 광주시 '소통대상'의 대상과 '청렴대상'의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 후보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2012여수엑스포 성공 등을 이끌었고 광주시청에선 5·18 범정부기념 지정하는 등의 일을 했다"면서 "자동차·전자·광산업 등 3대 전략산업 육성, 콜센터 유치로 통한 1400개의 일자리창출 등의 성과를 거둔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 동구청장에 당선된다면 27년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동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삼호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동의 노조 존중"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1일 "60.6%의 찬성으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에 동의한 노조의 대승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긴 시간동안 고통받아오다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금호타이어는 1960년 세워진 삼양타이어공업으로부터 한화기업이다. 건설한 국내기업 인수가 최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해외매각을 받아들이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상필 "북구에 명문 특성화고 신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1일 "북구는 전남대와 교육대를 비롯한 호남 명문대학들과 좋은 고등학교가 많이 있지만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전문적인 학교는 아직 없다. 명문 특성화고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하기 위해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의 지속적인 육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신설할 특성화고는 한전공대 설립과 연계한 에너지 전문교육과 문화·관광 특별구를 준비할 북구에 적합한 교육으로, 향후 취업수요도 넓다"고 말했다. 또 "명품교육도시 북구가 완성되면 교육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북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 등록



3선 도전에 나서는 강진원 강진군수가 1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강 예비후보는 "5만 군민의 행복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설계를 마쳤다"면서 "군민, 당원동지, 출향인 모두가 함께 했을 때 그 꿈은 현실이 된다"면서 젊고 검증된 행정능력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재임기간 군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이룩한 재정건전화 성과를 통해 이제부터 강진군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군수 재임시절 재정건전화에 힘써 강진군의 부채비율을 제로상태로 탈바꿈시킨 행정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2017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오섭 "북구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1일 "유치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북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광주 남구와 광산구에는 지난 2013년 2월과 11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북구는 아직까지 센터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과 식생활 관리 등에 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우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전류 농약검사 등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와 수입산, 트랜스지방, GMO를 배제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석원 해남군수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김석원 전 전남도의회원은 1일 해남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해남군민들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 공명정대한 명품 선거를 치르고 해남군 발전을 위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군민들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늘 처음처럼 더욱 낮은 자세로 해남군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군민 모두를 섬기는 자세로 해남군 발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동안 실추됐던 해남군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동안 준비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전남 시도의원 후보

김영록 "광산플랫폼 구민 참여 시스템 구축"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1일 "70만 생산소비 자족도시 광산 건설을 위한 정책시리즈 1탄으로 '광화문 1번가'와 같은 광산플랫폼을 만들어 구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민의 삶과 연계된 실질적 자치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위 기능을 강화·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정책 제안이나 민원사항을 상시받기 위해 광화문 1번가와 같은 광산 SNS플랫폼 구민참여시스템을 만들어 제도 개선과 생활안전, 환경 정비, 일자리 등 민생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현재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와 교육 상담 전문가와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 중심센터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세영 광주시의원 북구 제2선거구 출마



천세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이 최근 광주시의원 북구 제2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천 부위원장은 "질서 있는 광주, 평화와 희망이 있는 광주, 이를 토대로 생동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북구가 되도록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면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과 주차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라이온스 활동 등을 통해 봉사 소중함을 알게 됐고, 대한민국 신지식인 사회공헌위원회에 선정되기도 한 경험을 살려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o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NAVER 트윈스틸@ 검색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무료견적 H.010-9229-353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